

북한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표 언 복*

〈목 차〉

I. 서 언	현재
II. 북한문학연구의 필요성	IV. 북한문학연구의 과제
III. 북한문학연구의 과거와	V. 맺는 말

I. 서 언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국가사회와 인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학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문학지들이 중심을 이루고 주도해 온 이같은 논의의 불길이 지펴진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의 일이며, 근자에 이르러서는 여러 형태의 세미나, 학술발표회 등에서도 이 주제는 하나의 주류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논의들을 살펴보면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활자매체로서의 예술장르인 '문학'의 미래를 전망하고 그 과제를 논하는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민족문학'의 미래를 전망하고 과제를 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엔 영상문화와 사이버문화의 위세에 직면한 문학의 위기와 관련된 논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후자의 경

* 목원대 교수

우엔 이와 같은 세계문학 공통의 위기와 함께 문학의 상업성, 무주류성, 대중성, 다양성 등의 심화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90년대 들어 우리 문학에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과 일탈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신세대문학'의 출현과 유사 모더니즘문학의 횡일(橫溢)이 그것이다. 이는 물론 90년대가 갖는 전환기적 사회의 특수성 속에서 배태되어 온 것들이다. 공통의 적을 소멸시켜 버린 '6월 항쟁' 이후의 가시적인 민주화의 성과, 동구의 몰락과 함께 비롯된 냉전구도의 해소, 88올림픽 이후에 고양된 과도한 성취감, 또는 급속히 진행되어 온 경제규모의 확대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탐닉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했을 터이다. 그래서 이전엔 과도하여 오히려 위기감을 안겨주던 사회성이 문학으로부터 거세되고, 자아와 세계 사이의 통로를 차단한 채 개인주의적 감각적 세계에 안주하고자 하는 문학들이 범람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적 역사적 채무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문학은 이전보다 훨씬 흥가분한 기분으로 몰신주의와 짝하여 상업주의의 대해를 유영(遊泳)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 혹은 순수주의를 앞세운 비역사주의 내지 반역사주의적 문학현상들은 역사와 시대에 대한 증언과 예언을 포기한 채 격변하는 시대 조류에 발맞추기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서사적 물음들을 회피하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며, 기교적 소재적 모험주의를 쫓는 현상들도 90년대에 두드러진 현상들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문학의 위기'를 말하기 시작했다. 새 세기 문학에 대한 전망은 이같은 위기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문학의 다원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전통적 문학형식은 파괴되거나 혼합될 것이며, 매체에는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리라는 것, 다른 예술형식들과 문학형식들 사이의 기능적 혼란을 겪게 되리라는 것 등이 주된 전망의 내용들이기도 하다. 사회변동에 대한 능동적이고 선구적인 대응, 과거의 문학과 같은 과도한 정치성이나 이데올로기 편향주의의 극복, 영어의 국제화와 그 의존도의 심화에 따르는 민족어문학의 위축에 대한 대비, 지나친 상업주의 내지 통속문학에 대한 경계 등이 과제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같은 논의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경제적 과학적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논의들에서 민족사적 변화를 중심으

북한문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로 하는 논의들은 배제되어 왔고, 있어도 아주 주변적인 문제로 다루어져 온 느낌이다. 민족사적 변화는 경제적 과학적 변화와 관계없이 나라 안팎의 정치적, 혹은 군사적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정치, 군사적 요인이 경제, 과학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군사적 대치상태가 날카로운 우리 나라의 경우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 민족사회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민족사가 또 한 차례 심각한 변화의 격랑에 휩쓸리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사의 변화를 단순히 경제적 과학적 측면에서만 고찰하고자 하는 경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새로운 세기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민족사적 변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분단체제의 극복일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로서는 분단체제의 극복이란 문제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변화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단체제의 출범이 20세기 민족사의 핵심적 사건이었다면 이 분단체제의 극복은 다가올 21세기 민족사의 핵심문제가 될 것이 분명한 일이다. 따라서 향후 백년동안의 우리 문학은 이같은 민족사의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문학사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백년동안의 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일이다. 왜 이 문제가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는지, 분단 극복을 위한 문학적 대응은 어떤 것이며, 지금 우리는 분단의 다른 편인 북한의 문학에 대해 얼마만큼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연구성과는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북한 문학¹⁾ 연구의 필요성

우리의 근대문학운동도 벌써 한 세기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이제 세기 단위의 논의가 가능해진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지난 한 세기의 우리문학은 크게 두 가지의 위세 앞에 압도당해 온 형국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근대화라

1) 남·월북작가들의 문학으로부터 48년 북한 체제 수립 이후의 문학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를 구별하여 별도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근대화란 서구화에 다름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문학의 근대화 운동에는 상당기간동안 '서구문학 따라 배우기'가 해묵은 과제로 되어 있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는 시점에서 우리문학은 다시 좌·우의 이념적 대립에 노출되어 첨예한 긴장과 갈등관계를 빚어오다 결국 민족분단과 더불어 서로 다른 이질적 정치체제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운동으로 갈라선 '분단문학'이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근대문학운동은 우리문학 자체의 자율적 능력과 가능성의 토대 위에서 제대로 꽃 피워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미완의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 다가선 새로운 세기의 문학운동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이다. 근대문학운동 초창기와 같은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념적 장벽은 허물어져 더 이상 그 굴레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만큼 변해 가고 있다. 거기에 과거에 비하면 국제사회에서의 민족적 위상도 훨씬 높아져 활동영역은 넓어지고 기대되는 역할은 증대되었다. 이제 우리문학도 세계문학의 반열에 올라 민족문학 고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할 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세기 냉전체제의 유물인 분단문학을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두어서는 안되며 서둘러 통일문학 시대를 여는 일에 힘써야 한다.

통일문학 시대를 앞당겨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분단극복²⁾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당위와 필연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시기에는 분단극복 문제가 민족사의 가장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당위와 필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역사적 당위란 무엇인가. 그것은 분단상황하에서 야기된 내부 모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분단 반세기가 지나가는 동안 남과 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이질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체제와 제도의 차이가 고착상태에 있다. 남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사와 전통, 정서와 문화가 점차 공유할 수 없는 것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경제적 차이로 인한 삶의 내용과 질의 괴리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언어와 문자에서조차 그 이질화가 날로 심화되어 완전한

2) 이후 쓰이게 되는 '분단극복' '통일' 혹은 '통합' 등의 용어는 개념상의 큰 차이 없이 문맥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용어임.

북한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재통합을 위해서는 이미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단일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을 가지지 못한 분단 이후 세대의 증가는 자칫 분단상태가 오히려 더욱 자연스러운 상태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렇듯 모든 방면에서 격차와 이질화가 더 오래 지속된다면 이를 재통합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원과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 그 자체를 회의하는 계층이 확대될 것이고, 이는 통일 노력에 심각한 저항세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지금과 같이 조화롭지 못한 분단상태 하에서, 좀처럼 접점이 발견되지 않는 긴장과 대립관계가 더 오래 지속된다면 서로간의 적대감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또 다른 물리적 충돌을 불가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통일은 더욱 바라기 힘든 일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필연이란 경쟁적 세계질서라는 외적 요인과, 민중적 요구라는 내적 요인으로 인한 환경이다.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통합되어 가는 '지구촌' 시대의 국제환경이 분단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사조가 대두된 이후 세계는 모름지기 냉혹한 경쟁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국가만이 국제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는 신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국가는 여지없이 예측적 운명에 처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이 엄혹한 국제질서 속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이나 집단, 국가나 민족사이를 지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여전히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민족으로 남아 무한 소모적인 체제경쟁에 매달리는 일은 공멸 외에는 달리 선택이 없는 일이다. 이미 미국중심의 세계질서에 반기를 들고 초강대국으로서의 야심을 드러낸 중국, 급속한 우경화 기류 속에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는 일본, 한반도 중심의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러시아,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아직 절대적존적 관계일 수 밖에 없는 미국과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는 또 다시 어떠한 수모를 겪게 될는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이루어 낸 경제적 성과라는 것은 허약하기 그지없는 것임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절실하게 경험한 바와 같다. 이같은 사정은 우리가

더 이상 분단상태에 머물 수 없게 하는 외적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남북한 민중들의 분단극복 의지와 그 운동이 분단상태를 더 이상 고착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의 양 체제는 서로 극단의 대립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역설적이게도 서로의 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버팀목이 되어 왔다. 그러나 민중혁명에 의한 민주화, 극심한 경제난과 세계적 주류가 된 개혁 개방 운동의 여파로 인해 남북의 민중들은 이전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분단문제가 더 이상 소수 통치집단의 전유물일 수 없이 된 사정에서 점증해 온 민중들의 분단극복 의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물론 혈통적,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본 분단 자체의 모순성에 대한 통찰, 분단세대의 고통을 서둘러 덜어주어야 한다는 인도적 동기, 지금과 같은 분단상태가 더 오래 지속된다면 두 집단사이의 이질화는 날로 심화되어 이상적 형태의 재통일이 영영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 지금 같은 분단상태 하에서는 주체적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현실인식 등에 의해 더욱 촉발된 것이기도 하다. 통일은 이제 우리민족 집단적 가치의 한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이다. 90년대 이후 남 북 통합의 징후들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모두 이와 같은 사정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들은 남북한 모든 민중 공동의 것이 될 때 그 효율이 극대화 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문학 종사자들이 예외일 수는 더욱 없는 일이다. 문학은 오히려 이 일에 앞장서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학의 몫은 무엇인가. 그것은 반 세기가 넘는 분단상황하에서 심각하게 이질화 되어 온 서로의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 깊이를 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신뢰를 위한 선결과제이며 이해와 신뢰가 없이는 통합도 불가능한 것이다. 북한의 문학에 대한 이해와 신뢰는 곧바로 북한민중들에 대한 이해와 신뢰로 연결되는 일이며, 이같은 이해와 신뢰가 분단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문학적 실체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에 가깝고, 알고 있는 것이란 과도한 편견과 선입견에 근거한 것이 전부이다시피 한 오늘의 사정대로라면 통일 이후 우리 문학계가 치러야 할 혼란과 부담은 가히 상

북한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문학 이해를 위한 노력은 조금도 미룰 일이 아니며 오히려 서두르고 강화해 나아가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Ⅲ. 북한문학연구의 과거와 현재

지금까지 북한문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거의 무지에 가까운 이해요, 다른 하나는 편견과 선입견에 기초한 이해이다. 이는 물론 해방이후 거의 반 세기동안 '반공'을 권위주의적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 온 정치적 억압 때문이었다. 정부는 지난 53년 국방부 내무부 공보부 등의 3개 부처 회의에서 북으로 가 돌아오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판매금지조치를 내렸다. 이는 사실상 일체의 월북문인과 그들의 작품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와 다른 것이 아니었으며 문학의 분단을 의미하는 조치였다. 이후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현대문학교육은 백 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³⁾와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⁴⁾의 범주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문학사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적 하한선은 기껏 해방직후였다. 이기영, 한설야, 임 화, 이태준 등 월북문인들의 이름은 모두 북자로만 대할 수 밖에 없던 시절이었으니 그 내용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80년대 이전에 나온 시와 소설의 장르사나, 시인론 작가론 등도 거의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이재선의 『한국현대소설사』⁵⁾에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작가는 손창섭이며, 김용직의 『한국근대시사』⁶⁾는 김광섭에 대한 언급으로 끝막고 있다. 74년에 낸 조연현의 『한국현대작가론』은 이광수 이후 최정희 손창섭 대에서 끝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작가론⁷⁾에서도 역시 이광수에서 장용학까지가 대상이었다. 백 철과 조연현

3) 상권, 首善社, 1947. 하권, 白陽堂, 1949.

4) 1957년에 제1부가 현대문학사에서 간행된 이후 전3부가 간행된 것은 1961년의 일이었다.

5) 홍성사, 1979.

6) 학연사, 1986.

7) 홍성암, 유순영 편, 『현대작가론』, 삼영사, 1999.

문학사의 성과를 극복하고자 한 최초의 문학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김윤식과 김현의 문학사*까지도 좌·우 이념의 벽을 넘나들 수는 없었다. 우리의 현대 문학사가 얼마나 오래도록 제한적 논의의 틀 속에 갇혀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76년에 나온 김윤식의 『한국현대문학사』가 시대적 하한을 75년까지로, 91년에 나온 이재선의 『한국현대소설사』에서는 90년까지로 연장되고 있었지만 역시 공간적 확대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시대적 연장도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다. 그것은 적어도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의미있는 문제일 뿐, 다중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교육에서는 여전히 60년대를 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현대문학사를 해방을 중심으로 하는 가로 선과, 좌·우의 이념적 성향을 중심으로 하는 세로 선으로 나누어 단순한 표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팔봉 박영희	이광수 김동인
이기영 한설야	염상섭 현진건
임 화 김남천	나도향 이효석
송 영 이원조	김유정 채만식
.....
조기천 황 건	김동리 황순원
천세봉 석윤기	손창섭 장용학
변희근 강복례	최인훈 이청준
권정웅 백남룡	김승옥 임철우
.....

위와 같은 구분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작가들을 무작위로 배열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보면 가로선 위의 작가들은 모두 문단활동의 대부분이 주로 해방이전에 이루어진 사람들이고, 아래는 모두 주된 문학활동이 해방이후에 이루어진 작가들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로선 아래의 오른쪽 작가들은 해방이후 남한의 대표적인

8)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북한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작가들이고 왼쪽은 북한의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너무 단순한 분류이지만 이것만 보아도 우리 문학교육의 현재가 얼마나 모순되고 불구적인 것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다.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우리의 것이라고 배운 것이 사실은 절반의 문학사에 불과했던 것이다. 문학사마다 작가론마다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최남선 이광수에서 시작하여 김동리 황순원 정도에서 끝나고, 한껏 내려와야 60년대를 크게 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해방이전 카프계열작가들은 소수의 국문학 전공자들이나 겨우 다소의 이해를 가질 만한 정도에 지나지 않고, 해방이후의 북한문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접근금지' 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니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 온 '우리문학사'란 실제로 1/4의 문학사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93년에 이르러 우리의 문학사 기술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권영민의 『한국현대문학사』와 김윤식, 정호웅의 『한국소설사』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전 4장으로 된 『한국현대문학사』에서는 북한의 문학이 별도의 장에서 기술되어 있다. 『한국소설사』에서는 짧게나마 북한소설을 개관하고 있다. 전체적인 북한문학 이해에는 미흡한 것이지만 북한의 문학이 우리 문학사 안에 편입되기 시작한 최초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는 물론 1988년에 단행된 월북작가 연구에 대한 해금조치의 결과로 가능해진 일이다. 7. 19조치⁹⁾로 불리는 해금조치는 북한문학 연구에 최대의 걸림돌을 제거한 것과 같은 조치로서, 앞으로의 통일문학사에 획기적인 일로 기록될 만한 큰 의미를 지닌다.

분단이후 지금까지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성과물은 3백편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4.5년간 북한문학 연구논저들을 추적해 온 필자의 조사에는 지금까지 모두 220편이 기록되어 있다.⁹⁾ 이중에 단행본은 모두 59권, 나머지는 잡지나 학술지 등에 수록된 논문이거나, 신문기사, 학위논문 등의 형식으로 된 것들이다. 잡지와 학술지 등에 발표된 논문이 양적인 측면에서 단연 압도적이었다. 시기적으로는 6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50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지만, 절대다수가 88년의 7.19조치 이후에 나타난 성과들이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이 방면 최초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62년 8

9) 이는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며, 여기에는 북행작가들의 북행이전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는 작가론이나 작품론 등은 모두 배제되어 있다.

월에서 10월에 걸쳐 『신사조』에 발표된 崔泰應의 「북한문단 10여년사」이다. 이후 '7.19조치' 이전까지 전체 연구사 기간중 절반 이상의 기간에 공개된 성과물은 불과 20편 남짓. 그러나 '7.19' 조치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연구는 88년 한 해에만도 무려 20편 이상이 보고되었고, 이후 해마다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로서 북한문학 연구사는 '7.19' 조치를 기점으로 하여 명백히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7.19' 이전의 북한문학 연구는 일종의 보고서 형태의 것들이 많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崔泰應이나 李喆周처럼 직접 북한에 있으면서 잠시나마 북한의 현실을 경험한 사람이거나, 국토통일원과 같은 국가기관이나, 그같은 기관에서 대북(對北)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에 의해 발표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崔泰應의 앞의 글과 함께 또 다른 글 「越北文化人の悲劇」¹⁰⁾, 李喆周의 「北의 藝術人」¹¹⁾과 李基奉의 「北의 文學과 藝術人」¹²⁾ 등이 대표적이며, 통일원 산하 조사연구실, 통일연구소, 남북대화사무국 등에서 펴낸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다. 앞의 성과들은 분단이후 '철의 장막'으로 비유되던 북한 체제 안의 소식을 전해주는 몇 안 되는 통로이었지만, 지나치게 저널리즘적 호기심 위주의 내용들이 많은데다, 그 사실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수많은 북행문인들을¹³⁾ 두고 그들의 뒷 소식을 궁금해하던 사람들로서는 청량제와도 같은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문학의 실상을 전해 주는 더 큰 통로는 이들보다도 통일원 산하 기관에서 펴낸 「북한문학예술분야사업총화집」(74) 「북한의 문예정책과 문예이론 연구」(79) 「북한의 문화예술」(81) 등의 단행본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앞의 성과들이 주로 북한의 문단형성 초기 인물들의 행적에 치중된 것이었던데 비해 이것들은 보다 더 정책적 이념적 측면의 접근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차이를 보여

10) 『思想界』, 1962. 12. ~ 1963. 6.

11) 啓蒙社, 1966.

12) 思社研, 1986.

13) 그동안 학계에서는 정확한 월북문인수가 파악되지 않은 채 100여명 정도로만 알려져 왔다.(권영민 편, 『越北文人研究』, 文學思想社, 1989. 18쪽.) 그러나 7. 19 조치를 통해 해금된 문인 수는 무려 120여 명이다.(『東亞日報』, 1988. 7. 20.) 여기에 이광수, 김진섭같은 순수 남북문인까지를 합한다면 남. 월북문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북한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원의 청탁으로 이루어진 홍기삼의 연구서인 『北韓의 文藝理論』(81)을 포함하여 모두 ‘관학’(官學)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한 것들이었다. 그런 가운데 순수 민간연구가로서의 김윤식의 일련의 연구들이 구별되는 바, 『북한의 문학이론』(78), 『월북작가들의 문학사적 재조명』(78),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문예이론 비판』(81) 등이 그것이다. 이들 성과들은 당시 학계 일각에서 월북작가들에 대한 해금논의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마침내 78년 월북문인과 그들의 작품에 관한 규제를 완화시킨 이른바 ‘3.13’ 조치가 취해진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로서, 월북문인, 혹은 북한문학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철저한 반공논리가 지배하고 있던 정치상황하의 산물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완화조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연구성과가 극히 지지부진했던 사실은 당시의 연구환경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해금’ 조치는 이후로도 9년이나 더 기다려서야 이루어졌다.

1978년 3월 13일, 정부는 월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제한적인 규제 완화조치를 취한 바 있다. 대상은 ‘월북이전’의 ‘사상성 없는’ 것으로서, ‘근대문학사에 기여한 바가 뚜렷한’ 작품에 한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 연구는 ‘문학사연구의 목적’에 국한하되 연구내용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다. 그 대상과 범위를 경계짓고 조건의 한계가 분명치 못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는 일단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월북문인 연구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단 내에서조차 “반민족적 잘못은 분명히 있는데 마치 반가운 손님을 맞듯이 마구 이야기된다면 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음을 들어 대상과 범위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을 만큼¹⁵⁾ 그 당시 우리사회는 아직 경직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3.13’ 조치가 더욱 확대된 것은 그로부터 9년여가 더 지난 뒤인 1987년 10월 19일의 일이다. ‘금서해금조치’ 또는 ‘출판자유화발표’ 등으로도 불리는 ‘10.19’ 조치에서 정부는 그동안 6백32종에 달하던 금서 중 무려 4백 13종을 해금 조치하고 나머지 2백 19종을 유보시켰다. 이때의 조치는 종전 순수학문의 차원

14) 김동리의 경우이다. 『동아일보』, 1978. 3. 20. , “월북작가 작품 규제완화-문제점 진단”.

에서 상업적인 출판의 차원으로 폭을 넓힌 조치로서, 이를테면 월북 및 재북작가들에 대한 연구물의 상업적 출판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시 이듬해인 88년 3월 31일에는 정지용과 김기림의 작품 자체에 대한 해금조치가 단행되었다. 그리고 88년 7월 19일, 마침내 120여 명에 달하는 남·월북작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해금조치가 단행된 것이다. 이는 정부 수립이후 네 번째의 조치로서, 30년대 문학 논의의 핵심에 놓이는 홍명희 이기영 한설야 외에 조영출 백인준 등 5인이 제외되고, 해방이전의 작품들로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조치보다도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것으로, 탄력성 있는 민족문학 논의를 가능케 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었다.¹⁵⁾

네 차례에 걸친 일련의 점진적 해금조치를 통해 이제 민족문학 논의가 더욱 활기를 띠고 심도를 더해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아직 금기시되어 있는 미해금 작가와 해방공간의 문학은 물론 북한의 문학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해금과 개방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배경에는 물론 정치상황의 변화라는 직접변수가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만큼 우리사회가 성숙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83년「한국문인협회」는 「남북작가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정지용 김기림과 같은 남북작가들에 대한 '해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2년 뒤인 85년에는 정지용과 김기림의 가족들이 이들 문인의 '남북'을 증명하는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이들 문인의 「저서출판과 판매금지조치 해제」청원서를 정부의 관계당국에 낸 바 있다. 그리고 다시 87년 9월 7일에는 「한국문인협회」가 문화공보부에 정지용 김기림의 해금을 공식적으로 청원하였다. 이같은 공식적인 노력 외에도 '해금' 조치 이전에 이미 일부 남북작가들은 물론 월북작가들의 작품들까지도 영인본이나 재간행본 등의 형태로 은밀하게 음성적으로 유포되고 있었으며, 출판사 「깊은샘」에서는 『정지용-시와산문』을 펴내어 문화공보부에 납본함으로써 정부당국에 '공식해금'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7.19' 해금조치를 발표하면서 문화공보부가 국회 문화공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19' 이전에 이미 남·월북 문인의 시집 19종, 소설 15종, 산문집 1종, 평

15) 김윤식, 「7.19解禁에 붙여」, 『동아일보』, 1988. 7. 20.

북한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론집 5종이 시판되고 있다는 것이었다.¹⁶⁾ 남·월북북문인들의 작품에 대한 민간의 관심도를 알려주는 대목이면서, 동시에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유연성이 읽혀지는 내용이다. 마침내 정지용 김기림 작품의 해금이 이루어지고 대대적인 '7.19' 해금조치가 단행된 것은 이같은 문단 안팎의 일련의 노력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정부 당국도 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탄력적이고 자신감 있는 성숙성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동시에 국내의 학계에서는 이들과 이들의 문학은 물론, 48년 북한 체제 수립 이후의 북한문학 일반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두드러진 현상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우선 해금작가들의 작품집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당장 각각 30권 안팎의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와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가 간행되어¹⁷⁾ 지금까지 금기시되어 왔던 북행작가들의 작품을 자유로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들은 상당수 대표적인 북행 작가들의 작품을 망라하는 것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에 가장 방대한 일차자료집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듬해엔 『한국해금문학전집』이 간행되고¹⁸⁾, 이후 선집이나 전집 또는 단행본 등의 다양한 형태로 된 작품집 간행이 줄을 이었다. 이기영, 조명희, 한설야, 이태준, 박노갑, 박영희, 정지용, 김기림, 오장환, 백석, 이용악 등등의 개인선집이나 전집들도 속속들이 간행되었으며, 대표작이나 작품집들이 재간행되기도 했다. 특이한 것은 작품집 간행이 해금작가들에 국한되지 않고 미해금작가, 북행이후의 작품들까지 거의 자유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홍명희, 이기영, 한설야 등과, 이기영의 「땅」 「두만강」, 박태원의 「갓오농민전쟁」을 비롯한, 한설야의 「설봉산」, 최명익의 「서산대사」, 황건의 「개마고원」 등이 그 예이다. 작품집의 간행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북한이 자랑하며 체제선전물로 이용하기도 하는 「한자위단원의 운명」이나 「꽃파는 처녀」와 같은 원전들의 재간행, 백남룡의 「벗」과 같은 북한 현역작가들의 작품들까지도 음성적으로 유포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북행작가들이나 북한원전들에 대한 관심

16) 동아일보, 1988. 7. 20.

17) 태학사, 1988.

18) 전18권, 삼성출판사, 1989.

과 호기심이 일시에 분출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때맞춰 팽창되어 온 연구인력에 비해 연구영역은 오히려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던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집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편으로 해금작가들에 대한 작가론 및 작품론도 붓물을 이루었다. 이기영, 한설야, 이태준, 정지용, 임 화, 김기림 등이 주요 연구의 대상이었지만 그 영역은 급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이들 해금작가들은 각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의 주된 주제군을 이루어 왔으며, 기존의 연구가들도 해금작가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온 바 그 대표적인 연구성과들 중 단행본만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권영민 편저, 『월북문인연구』, 문학사상사, 1989.

김윤식, 『한국현대현실주의소설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박덕은, 『해금작가 작품론』, 새문사, 1991.

홍기삼, 김시태 편저, 『해금문학론』, 미리내, 1991.

채 훈 외, 『월북작가에 대한 재인식』, 깊은샘, 1995.

이미림, 『월북작가소설연구』, 깊은샘, 1998.

이들 연구서들에서 다루어진 작가는 모두 39명. 전체 해금작가 수에 비하면 1/3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소수 특정의 작가에 편중돼 있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위의 자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개별작가론이나 작품론 또는 일반 연구논저들이 있으나 그 경향을 짐작하는 데는 충분하리라 본다. 정영진은 특히 상대적으로 그 지명도가 높지 않은 문인들을 중심으로, 월북이후 그 종말이 비극적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낸 성과를 내어 놓아¹⁹⁾ 주목을 끈다. 이같은 작가론은 초기, 작가에 대한 개괄적 소개의 단계를 지나 작가의 전모를 분석한 총체적 연구서들이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역시 일부의 작가에 편중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지만 홍명희, 이기영, 한설야, 김남천, 이태준, 박태원, 임 화, 박영희, 정지용 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서들이 간행되었다. 작가에 따라서는 벌써 2,3종씩의 연구서가 나온 경우도 있다. 연구는 점차 북행문인 중심에서 조심스럽게 북한문단 출신의 작가와 작품들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19) 『통한의 실종문인』, 문이당, 1989.

북한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보이고 있다. 황 건, 윤세중, 조기천, 박태민 등은 이미 단일작가론이나 작품론 등을 통해 국내에 알려진 작가들이다.

해방이후 정부수립 시까지의 문학적 사실들에 대한 자리매김 논의가 대단히 활발했던 것도 한 특징이다. 해금조치 이전 이미 권영민에 의해 그 단초가 마련되어 있던²⁰⁾ 이 분야의 연구는 이후 연구가들에 의해 '해금작가론' 못지 않은 관심의 영역이 되었다. 김윤식에 의해 '해방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시기 문학에 대한 관심은 분단을 전후한 과도기적 성격으로 인해 한국근대문학의 연속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특히 주목을 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시기의 문학은 해방직후의 혼란으로 인한 지리멸렬함과, 그 주역들의 집단적 월북 사태 등과 관련돼 지금까지 거의 논의의 공백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었다. 김윤식은 특히 이 시기 문학의 자리매김을 주도하면서 『해방공간의 민족문학연구』,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해방공간의 남북문학조직 비교연구』 등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신형기²¹⁾, 김승환²²⁾, 이우용²³⁾ 등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남기고 있으며, 방대한 분량의 『한국현대문학자료총서』²⁴⁾는 이 시기 문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북한의 원전들을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은 북한문학 연구에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70년대 후반, 월북문인들에 대한 해금논의가 제한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80년대에 들어서는 홍명희의 「임격정」을 비롯한 월북작가들의 원전들이 영인 또는 재간행되어 유포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89년 5월 22일, 통일원 산하의 북한자료실이 일반에게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이 분야 연구에 큰 전환점을 이루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하나는 지금까지 북한문학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폭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이후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다른 하나는 이것이 북한원전의 활발한 유입

20)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21) 『해방직후의 문학운동론』, 제3문학사, 1988.

22) 『해방공간의 현실주의문학연구』, 일지사, 1991.

23) 『해방공간의 민족문학사론』, 태학사, 1991., 『해방공간의 문학연구』 1.2., 태학사, 1990.

24) 거름, 19??.

이나 국내 재간행을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에 개방된 북한자료실은 이후 북한문학 연구의 산실이 되고 그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맨 처음 『조선문학개관』이나 『조선문학통사』 등으로부터 시작된 원전의 유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그 종류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결과 우리는 이제 적지 않은 수의 북한 원전들을 비교적 손쉽게 섭렵할 수 있게 되었다. '7.19' 이후 보고된 많은 연구성과들은 사실상 북한자료실의 개방과 원전열람의 기회 확대가 절대적인 요인이었고 볼 수 있겠다. 이는 물론 냉전체제가 해소되고 급속하게 개방화를 추진해 온 국내의 정치환경의 변화와, 정치, 경제적 자신감에서 비롯된 우리정부 당국의 유연성에 힘입은 바 큰 것이었다.

'7.19' 이후의 북한문학 연구는 관 주도의 연구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순수민간 중심의 연구로 탈바꿈하였다. 관변의 연구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제 더 이상 북한문학 연구가 관변만의 몫일 수 없을 만치 민간의 연구는 튼튼한 기반과 왕성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소수의 기성연구자들이 중심을 이루었던 연구인력은 점차 젊은 신진연구가들로 확대되면서 그 층이 한결 두꺼워졌다. 초창기 김윤식 권영민 등이 주도하던 북한문학 연구가 김재용 오현주 송희복 등이 가세하면서 그 폭과 깊이가 더욱 확대 심화된 것이다. 김윤식은 스스로 "북한문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²⁵⁾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 분야 연구의 독보적인 존재라 불릴 수 있을 만큼 끊임없이 수많은 성과들을 내놓으면서 연구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그의 학문의 일관된 목표는 '통일문학사'를 완성하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한국근대문예비평사』(73)를 내던 때부터 그는 그의 연구 영역 안에 북한의 문학을 끌어 안고자 하는 끈질긴 집념을 보여왔다. 이후 『한국현대문학비평사』(82)와 『한국현대현실주의소설연구』(90), 그사이 해방공간의 문학에 대한 천착 등에서 항상 카프문학 혹은 월북문인들을 주목해 온 것은 바로 이같은 작업을 위한 기반다지기이며, 이질화된 남. 북문학의 접점찾기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 끝내 그가 이르게 될 정점은 '통일문학사'가 될 것이다.

86년에 이미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연구』를 내며 분단문학문제에 관심을

25) 『북한문학사론』, 새미, 1996, 3쪽.

북한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표명해 은 권영민도 『월북문인연구』(89) 『북한의 문학』(89) 등을 잇달아 펴내는 한편으로 「문학사의 총체성 회복과 월북문인문제」(88) 「북한의 문예이론과 문예정책」(88) 「북한에서의 근대문학연구」(89) 「주체사상과 북한문학의 성격」(90) 등을 통해 해금이후의 초창기 북한문학 연구에 한 축을 이루어 왔다.

9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김재용의 집념과 성과가 단연 두드러진다. 80년대 말 「해금작가들과 민족문학사」(88) 「해방직후 남북한문학운동과 민중성의 문제」(89) 등을 통해 그의 관심사를 표명해 낸 이후 일관되게 북한문학 관련 연구에 집착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북한문학 전사로서의 카프문학에서부터 90년대의 북한문학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통시성을 지향하고 있다. 방대하게 수집된 실증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 낸 연구물들은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1,2}와³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⁴에 집대성되었다. 특히 후자는 북한문학 연구사에 있어서 한 전기를 이루는 성과이다. 지금까지의 북한문학연구는 한결 같이 단편적인 것들이었다. 개별작가론이나 작품론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외의 것들도 모두 단편적 주제들에 대한 논의에 불과한 것이거나 아니면 북한문학에 대한 개관, 혹은 북한문학 이해를 위한 안내서들이 대부분이었다. 단행본들은 여러 필자에 의해 쓰여진 단편적인 것들을 내용별로 균형 있게 모아놓은 것들이거나 개관서들이었다. 이것들의 한계는 북한의 문학 전체를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하나의 논의의 틀 속에서 분석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일관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연구가에 의해 완성된 이 연구서는 이런 한계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것이었다. 해방이후 90년대 초까지의 북한 내 문예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학적 수용과 흐름을 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이 연구서는 북한문학을 정책의 변화에 따른 예속물로서의 변화 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자율적 흐름까지를 놓치지 않고 있을 만큼 치밀하다. 이는 선험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방대한 원전섭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내재적 연구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저자 개인의 성과물로서 뿐만 아니라 불과 십 년 남짓한 전체적인 북한문학 연구사의 집적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면서, 우리의 북한문학

26) 1권은 1990년, 2권은 1996년에 각각 한길사에서 출판되었다.

27) 문학과지성사, 1994.

연구가 앞으로 지향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용상 10년 남짓한 북한문학연구사는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다. 관학성격의 북한문학연구에서 민간주도의 순수학문연구의 차원으로 발전시킨 점은 무엇보다도 값진 성취이다. 종전 관 주도의 연구는 오히려 화해와 일치를 지향해야 하는 통일문학 논의에 역기능적 요소들이 많았다. 그것은 남·북문학의 상호 이질성을 부각시키고 배타적 선협적 가치판단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련의 금기들이 사라지고 민간주도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이같은 독소들은 제거되고, 명실상부한 통일문학 논의의 합리적 준거와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용이야 어쨌든 그동안 왕성한 북한문학 논의는 그 실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확산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이같은 관심과 인식의 확산이 결국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으로까지 나아갈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해금이후 초기엔 주로 해방 전 문학운동의 중심에 있던 남·월북작가들 위주의 작가론과 작품론이 주류를 이루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질적인 북한의 문학적 실상을 소개하는 내용의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해금초기의 달아오른 호기심이나 억제되어 온 관심의 열도에 편승하여 내재적 접근이나 분석을 소홀히 한 채 선협적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합리적 균형 감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다. 게다가 기왕의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급조한 것들도 적지 않았다. 반면 이상주의적 정서적 통일관에 젖어 애써 결점은 덮어버리고 무조건 겨안아야 한다는 식의 비과학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경향은 연구인력의 확대와 더불어 점차 극복되어 왔다. 논의는 점차 월북작가 위주에서 재북작가 연구로 확대되기 시작하고, 북한의 문예정책이나 종속성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남·북문학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냉전체제 하의 이념적 편향성에서 비롯된 선협적 부정이나 맹목적 옹호와 같은 불균형성도 점차 시정되어 가고 있다.

연구는 또한 실상 알리기의 차원을 벗어나서 내면 탐구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개관의 수준을 뛰어넘어 총체적 파악을 지향해 가고 있다. 북한문학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한 비평에 대한 비평이 자주 보이기 시작하

북한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는 것은 북한문학의 연구가 날로 성숙되어 가는 증좌로 보인다. 아직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북한문학을 단순한 문예정책의 변화, 혹은 사상미학적 틀 속에서만 보지 않고 복합적 가치체계의 산물로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고, 남·북문학의 동질성 모색의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일련의 현상들은 모두 북한문학 연구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고무적인 현상들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IV. 북한문학연구의 과제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연구를 무위로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이뤄내야 할 과제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해금작가들의 문학에 대한 이해도 아직 허약하기 그지없는 것이지만, 해방이후 북한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하면 쉽게 수궁이 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문학연구는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으로, 한결 더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의 북한문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연구가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연구는 궁극적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대비한 '통일문학사'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기왕의 연구들에서 우리는 북한문학에 대한 선입견적 부정이나 분별없는 냉소적 경향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의 경우는 대개 분단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냉전체제하의 이념적 편향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는 통일문학을 지향해야 하는 북한문학 논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억지로 감싸고 도는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얻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월북작가 중심의 연구가 서둘러 극복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대부분 이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 수 있다. 문제는 지나치게 여기에 머물러 친척이 더디고 북한체제 수립 이후의 문학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이다. 더불어 월북작가 중에서도 소수 작가 중심의 불균형성이 해결

돼야 한다. 7.19' 조치에서 해금된 문인은 모두 120명이 넘는다. 그러나 이 중에는 아직 한번도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작가가 절반을 훨씬 넘는다. 이는 물론 문인자신의 문학적 성취도나 문학사적 의미의 정도에 따른 것이겠으나 그렇다고 전체 연구계의 시각이나 관심의 고정성 내지 편협성 등이 가려질 수는 없다.

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곧바로 대상과 영역의 확대문제와 연결된다. 결국 연구는 48년 이후의 북한문학 연구로 확대되지 않을 수 없다. 월북작가 연구는 바로 이에 이르기 위한 필연적 과정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김윤식 김재용이 이 연구를 선도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일이다.

북의 원전을 폭넓게 섭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과도하게 북한의 문예정책과 관련한 이론이나 이념 차원의 논의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또한 이제 막 시작된 연구에서 불가피한 일이었겠으나 이제는 보다 더 사료로서의 원전에 충실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원전의 폭도 넓어져야 할 것이다. 원전에 기초해 있지 않은 문학연구의 허구성은 충분히 알려진 일이라고 믿는다.

정치적 예측성이 강한 북한문학 연구에서 역사주의적 관점이나 이념적 접근 방식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주변 및 관련 요소들과의 상호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간의 국제정세의 변화, 경제·사회사적 흐름, 또는 북한 내 제반 생활조건 등의 변화 등이 폭넓게 검토되지 않으면 북한문학에 대한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대단히 힘든 과제겠지만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북한문학 연구가 오로지 연구실 안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연구내용이 일반대중에게 알려지고 가르쳐지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 측면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연구성과는 항상 각종 매체를 통해 보고되고 시판되었지만 그같은 형태는 아직 우리의 경우 소수 관련 연구자들 사이의 소통기능 밖에 없는 것이다. 연구는 최소한 대학의 강의실에까지는 확대되어야 하며, 일정한 합의와 검토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각급 학교의 교재에 반영시켜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했거니와 우리의

북한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문학교육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북한의 문학에 대해서는 아직도 엄격한 통제와 폐쇄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전국 각 대학의 요람을 통해 조사해 본 바로는 학부 또는 대학원에 북한문학 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곳은 「북한의 언어학」과 「북한의 문학」이 격년제로 개설되고 있는 고려대학교와, 「북한문학의 이해」란 강좌를 두고 있는 목원대학교 단 두 곳 뿐이었다. 강좌명만으로 강의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북한문학 연구 열기에 비하면 대단히 모순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부산대 대학원에는 「북한어학연구」라는 강좌가 있었고, 영남대에는 「민족문학론」이라는 강좌가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제들은 필수적인 전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문학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해금과 유연성 있는 태도이다. 5인의 미해금 문인들을 해금조치하고 해방공간의 문학으로까지 확대시키는 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48년 이후의 북한문학에 대해서도 용기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홍명희나 이기영 한설야 등의 문학은 비록 음성적으로나마 이미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소통되고 있는 터이다. 해방공간도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금기의 공간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들을 계속 금기의 굴레 속에 가두어 두는 일은 법치정부의 권위나 신뢰문제로서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다만 48년 이후의 북한문학에 대해서는 다소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역시 적지 않은 수의 작품들이 유포되고 있으나 우려할 만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탄력적인 조치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일종의 심의기구 같은 것을 두어 공개대상 작품과 연구대상 작품을 구분하고, 공개대상 작품은 일반에게 자유롭게 공개하되 연구대상 작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연구의 한도 안에서만 공개되도록 하는 방안 같은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도 빠른 시일 안에 해제되어 적극적으로 공개해 알리고 가르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해방이 '도둑처럼' 왔듯이²⁸⁾ 통일 또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때문이다. 기왕에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그 이용이 좀 더 자유롭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장 자료들을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게 할

28)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역사』에서 쓴 표현이다.

것이며, 대학이나 관련연구소들의 기능을 확대시켜 지방에서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의 몫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북한문학을 연구하고 그 실상을 알리며 가르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는 모두 통일을 앞당기고, 먼 장래의 일일 수 없는 통일을 큰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북한문학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각급 학교의 교과에 북한문학 관련 내용을 반영해 가는 일은 더 없이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V. 맺는 말

이상으로 본고는 북한문학 연구의 당위성과 그 과정 및 현상을 살펴보고 아울러 앞으로의 과제까지 일별해 보았다. 그 동기나 목적은 오로지 북한문학에 대한 '낯익히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증 같은 것에 있었다. 통일은 다만 물리적 통일만이 아니라 화학적인 통일이 될 때 완전한 것이 되며²⁹⁾,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이 저마다 상대방을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어야 가능할 수 있다는 소박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이같은 마음에서 그간 수행되어 온 우리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해 볼 때 나름대로는 어떤 흐름이나 한계 같은 것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그것이지만, 지나치게 피상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무엇보다도 그간의 연구성과들을 완벽하고 치밀하게 파악해 내지 못한 것을 숨길 수 없으며, 그나마 파악해 낸 성과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변명을 대신하고자 한다. 다만 북한문학 연구자들에게 한 번 쯤 숨고르기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 당국에 대해서는 북한문학에 대해 보다 유연성 있고 과감한 조치를 서둘러 주도록 촉구하는 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9) 사회의 제반현상들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미 반세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질 화해 온 남북이 완전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견해들도 있다.